

=====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

감동의 시대다. 기분 좋게 해 주는 시대다. 생각의 시대다.
이때 '자기 몸'을 가지고 책임을 해라. <틈>으로 '운명'이 좌우된다.

=====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for understanding proverbs and
parables, the sayings and riddles of
the wise.

=====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은 <잠언>으로 섭리인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기억하기 좋고, 사용하기
좋고, 행하기 좋은 지혜의 잠언입니다.

오늘도 짧고 굵게 말씀하고 마치니,
처음부터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은 짧아도 <깨달음>은
많고 깊습니다.

◎ 말씀 시작합니다. <말씀 시작>

<감동되고 흥분되고 기분이 좋을 때의
생각>과 <평소의 생각>은 다르다.
<감동되고 흥분되고 기분 좋을 때>
해야 된다. 그때는 '뇌도, 마음도,
생각도, 몸도 날아다닐 때'다.
고로 그때 하면 잘해진다.
생각났을 때 해야, 잊지 않는다.
<뇌>는 한 번 잊어버리면,
아예 기억이 안 난다.
모두 겪어 봐서 아는 바다.

<눈>으로 볼 때 제대로 보라.
<눈>에서 안 보이면,
형상도 모양도 사라진다.

<눈>으로 볼 때
'제대로 뇌에 입력하기, 기억하기'다.
볼 때 '눈여겨보기'다.
슬쩍 보면 봐도 긴가민가한다.
<영계>도 '들어가서 볼 때'
자세히 봐야 된다.

<눈>은 <뇌>와
'한 짝'이 되어 기억을 한다.
매일 봐도 그 형상이 기억나지 않기도
한다. 그럴 때는 '사진'을 보라.

<뇌>는 한 번 보면,
그 형상을 훤히 기억하지 못한다.
이 사람을 보다가 다른 사람을 보면,
그쪽으로 형상이 뒤바뀐다.

얼굴의 형상을 잊었다가도
사진을 보면 '이름'이 생각나고
'형체'가 생각한다.

성경도, 말씀도 그러하다.
한 번만 보면, 훤히 기억하지 못한다.
고로 '조금씩이라도 매일 보기'다.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생각에서 떼지 말고
정기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바로바로 생각한다.

잊으면 죽는다. 잊으면 죽는다는 말은
'뇌에서 사라져 버린다.' 함이다.
잊지 말라고 하지만 말고,
'잊지 않도록 생각하기'다.
'잊지 않도록 행하기'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잊고 산다.
그러나 '잊고 사는 자'만 손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어느 날>에 '그동안 원하던 것'을
주실지 모른다. 그런데 <자기가
삼위일체를 잊고 사는 날>이
<삼위일체가 주시는 날>이면,
못 받고 끝난다.

잊지 않으려면, 항상 부르고 찾아라.
매일 생각해라. 그리고 대화해라.
안 하면, 사망으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고
찾는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해 보라! 그로 인해 육도,
혼도, 영도 축복이다.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흐지부지할 것이냐.

개미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은 하찮은
벌레'를 보고, 목숨 걸고 땀 흘리며
자기 집으로 끌고 간다. 가다가 자기도
사람 발에 밟힐까 봐 가슴 졸이며
간다. 개미 자신은 그 벌레를 못
잡는다. 사람이 밟아 났기에 끌고
간다.

개미는 그것을 보고
"횡재했다." 하며 끌고 간다.
삼위일체와 주가 도와서
<영원한 횡재>를 하게 해 주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확! 잡아서
끌고 가지 않으려느냐.

개미가 스스로는 벌레를 못 잡지만
사람이 밟아 놓은 벌레는 끌고 갈 수
있듯이, 네가 스스로는 얻지 못하는
것이지만 삼위일체와 주가 도와서
얻은 '영원한 횡재'다.

어서 잡아서 끌고 가라!
네 것으로 삼아라!

<눈>을 가지고 '물건'을 옮기겠느냐.
<눈>으로는 평생 못 옮긴다.
<눈>으로는 보고,
<손>을 가지고 옮겨야 된다.

삼위가 '크게 해 주신 것'이 있다.
<손>으로 옮기듯, 나머지는
네가 <책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 것이 된다.

감동의 시대다.
기분 좋게 해 주는 시대다.
생각의 시대다.

감동받았을 때, 기분 좋을 때,
생각났을 때, 이때 '자기 몸'을 가지고
책임을 하며 행해라!

<잠시 쉬었다가>

<때>는 마치
'자기가 행할 것의 자료'와 같다.
때, 자료, 행실이다. 지금은 '말씀을
주면서 기억나게 해 주는 때'다.
말할 때만 뇌에서 생각하니
이때 기록해라.
이때 집중해서 기억해라.
그리고 즉시 행해라.
그러면 잊기 전에 행하는 것이다.

성령이 이 잠언을 주실 때,
즉시 받아서 기록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즉시 기록하고 행하니,
잊기 전에 행했다.

<행할 때>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나 그 시간도 '잠깐'이다.
이 잠언들도 순간 '틈 시간'에 쓰고
있다. 내가 하고자 하니,
뇌도 생각도 내 몸과 성령과
일체 되어 잠언을 받아 기록한다.

언제 <말씀>이 올지 모르니,
범사에 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잠언 한 개'를 주시면,
즉시 받아서 기록해야 된다. 그래야
'뒤에 오는 잠언'을 재치 있게 받아서
기록한다.

늘 준비하고 있다가 '틈 시간'을
사용해라. 그 시간에 행한 것들을
합치면, 엄청나다.

<틈 시간에 한 일>이
<하루 종일 한 일>보다 많을 때도
있다. 이는 '제때' 했기 때문이다.
가령 '일출 사진'을 찍는다 하자.
순간 뜰 때 1~2분 만에 못 찍으면,
그날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도 '일출
사진'은 못 찍는다. 이와 같이
<기회>는 '순간'일 때도 있다.

<포착력>이 강하려면
'비호(飛虎)'같이 빨라야 된다.
<흥분>은 그냥은 안 된다.
노래하거나 춤을 추거나 움직여야
되듯이, 기도하고 삼위일체를 찾고
사랑해야 기쁨이 온다.

<틈 시간>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좋게, 혹은 나쁘게 좌우된다.

<틈 시간>은 '기회'다.

이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좋게, 혹은 나쁘게 좌우된다.

<순간의 틈 시간>은
짧고도 짧은 시간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운명을 좌우하는 자들'이
많다. 위급할 때, <좁고 좁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도망쳐
살기도 한다.

<모기>도 '틈'을 노린다. 그 '좁은
틈'을 타고 어느새 물어뜯고 간다.

<사탄>도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 '틈'으로 인해 '운명'이 좌우되기도
한다.

<전능자>도 '틈 시간'에 오셨다가
준비가 됐으면 만나고 가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순간 가신다.

그 '틈'으로 인해
'운명'이 좌우되기도 한다.

마라톤 선수인데 '순간 틈 시간'에
물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고
뛰어서 우승한 자도 있다.

해도 해도 시간에 쫓기면,
'틈 시간'을 써라.
그러면 안 쫓긴다.

<틈>은 '작은 구멍'이지만,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상대가
'틈'을 통해 '전체'를 쳐다보기
때문이다.

<뚫린 틈>으로 도둑이 쳐다보는데,
어린이가 평소 습관대로 젓가락으로
틈 사이를 꼭 찍었다.

도둑은 젓가락을 눈에 맞고 사라졌다.
<틈>으로 '운명'이 좌우된다.
시간도 행위로 그러하다.
<틈 시간>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바늘구멍 같은 틈>으로
'청중'이 다 보인다.
100% 완전하게 해야 된다.
<그 틈>을 통해 '적들'이
다 보고 있다.

<틈> 가지고 공격한다.
<틈>에 쉬고 <틈>에 주의하지 않으니,
<틈>에 공격한다.
<틈>을 소홀히 하며 잊으니,
<틈>에 공격한다.

전쟁 중의 작전 때도 항상
<틈 시간>이 '적이 노리는 시간'이다.
그때 마음 놓고 있다가 당한다.

사탄은
'생명을 관리할 때'는 못 건드린다.
그러나 '관리 안 하는 틈'에 건드려
쓰러뜨린다. 유괴범도 '부모가
어린이의 손을 놓을 때'를 기다린다.
'아이가 순간 혼자 있을 때'를 노린다.

<틈>을 노리기 위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늑대같이 망을 본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 힘들어. 저기 가서 5분만 놀다
와." 하고 아이를 떼 놓는 순간,
아이를 유괴한다. 항상 '마음 놓고
태만할 때' 당한다. 실패한다.

적을 미리 알면, 오히려 '적'을
함정으로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리고

문제를 해결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도 강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수시로 틈틈이 창밖을 봤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도가 자기 집
건물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휴지통을 던져도 안 되겠고
빗자루를 던져도 안 되겠다 판단하고,
방에 사람이 있다는 인기척을 내면서
강도가 빨리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물을 뜨겁게 끓여서 강도가 올라오는
곳에 물 폭탄을 쏘다.

강도는 아래로 떨어져 사라졌다.

사탄도 이렇게 공격해라!
자기 게으름도,
자기 나쁜 습관도,
이렇게 공격해라!
그러면 끝장난다!